

사회

전남교육청 PC 1만2000대 입찰전쟁 USB소켓 위치에 70억 승부 갈려

측면 부착 삼성전자 탈락... 강력 반발

전남도교육청의 최근 밤주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00여대 규모 노후 PC 교체사업에서 메이저 업체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인 끝에 LG전자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삼성전자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PC 규격에 문제 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 가 주목된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 노후 PC 교체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 PC(모니터 포함) 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결과 입찰가 77억여원 을 써낸 LG전자가 낙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LG전자를 포함해 삼성전자, 한국HP, 삼보컴퓨터 등 국내 대표업체들이 참여하는 등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삼성전자는 입찰가로 68억여원, 한 국HP 70억여원, 삼보는 81억여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컴퓨터 1만2244대의 납품이 걸린 이번 입찰을 삼성·LG의 2파전으로 관측했다. 입찰의 성패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점쳤었다.

그러나 낙찰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변수는 의외로 외부 저장 장치(USB) 사용방식이었다.

도교육청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PC 사양으로 제시한 '입출력 단자 USB 2.0 포트(있는 곳) 6개 이상(전면 2개 이상·후면 4개 이상)' 조건의 총족 여부로 사실상 승패가 갈린 것이다.

삼성의 경우 USB포트를 PC본체의 전면이 아닌 측면삽입 방식을 채택,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사용 불가능 판정'(규격미달)을 받은 것이다.

삼성은 지난 6일 도교육청에 공문

을 보내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삼성측은 "전면 USB 2개 이상" 규격과 관련, '전면'은 PC본체의 후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면 판넬의 옆면 또한 전면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제안서에서 제시한 제품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에 6만여대가 납품돼 하자 없이 사용중"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11일 이 내용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한 결과 사실상 기각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USB 2개 이상" 규격을 둔 것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 본체를 상자형의 공간에 넣는 수납방식으로 보관, PC의 전면부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한 규격"이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1일 이 내용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한 결과 사실상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태권무로 무더위 탈출

11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노인건강타운에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기며 태권무를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애학생들 배움의 산실

광주 '사랑터' 15일 개원

광주지역 장애학생의 문화와 여가활동의 산실이 될 특수교육지원센터인 '사랑터'가 문을 연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담당할 '사랑터' 구축을 마치고 오는 15일 개원한다.

초·중학교 장애학생에게 직업 기능 습득을 돋는 각종 조립활동과 음식만들기 등도 가능하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에는 초·중학교 장애학생 50여명이 사랑터에서 배움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필리핀 2년째 억류 김규열 선장

여수시장이 구명 운동 나섰다

김충석 시장 현지 방문 위로... 신속한 재판 요청

여수 출신 50대가 필리핀에서 1년이 넘도록 억울한 육살이를 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2011년 1월 6일 7면)와 관련, 김충석 여수시장이 현지를 방문해 당사자를 위로했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김 시장이 필리핀 마닐라 시티헬 교도소를 찾아가 투옥중인 김규열(50)씨를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지역 학교를 졸업한 뒤 필리핀 현지에서 선장으로 활동중이던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백화점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김씨에게 "모든 여수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필리핀 관계자들을 만나 재판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중이니 용기를 잊지 말라"고 격려했다.

앞서 김 시장은 마닐라의 벨라스코 대법관을 만나 김씨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초 광주일보 보도를 통해 김씨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자 외교통상부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으며,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오늘 날씨

해물 05시 27분 해진 19시 49분

달밤 17시 10분 달점 02시 14분

소나비

오후 늦게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었다.

광 주	오후한때비	22/30 °C
목 포	흐림	23/28 °C
여 수	흐림	23/27 °C
나 주	오후한때비	22/30 °C
완 도	흐림	23/28 °C
구 레	오후한때비	23/30 °C
강 진	오후한때비	23/28 °C
해 남	흐림	23/28 °C
장 흥	오후한때비	23/28 °C
순 천	흐림	23/29 °C
영 광	흐림	23/29 °C
진 도	흐림	23/29 °C
전 주	오후한때비	22/31 °C
군 산	흐리고한때비	22/28 °C
남 원	오후한때비	21/31 °C
흑 산	흐림	21/26 °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0.5~1.0m	●	●	●
	민비다	동~남동	0.5~1.5m	●	●	●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비다	동~남동	0.5~1.5m	●	●
	민비다	동~남동	1.0~2.0m	●	●
남해	서부 앞비다	남동~남	0.5~1.0m	●	●
	민비다	남동~남	1.0~2.0m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씨	●	●	●	●	●	●

인도 여행객 첫 콜레라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인도 델리, 바라나시 등을 여행한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입국 과정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검역소가 이 환자의 검체를 확인한 결과 비브리오콜레라 오가 외형(V. cholerae O1, Ogawa)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휴가철에 인도 및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콜레라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민원실서도

국회도서관 정보 열람

광주시 북구 민원실에서 국회도서관 정보 열람이 가능해진다.

북구는 12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송광운 북구청장과 유재일 국회도서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와 국회도서관 간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정이 이뤄지면 국회도서관의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로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플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 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암과)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독포점 061-262-920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놓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